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7년 8월

석사학위논문

# 셰익스피어의 여성인물에 나타난 페미니즘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최 승 미

# 셰익스피어의 여성인물에 나타난 페미니즘

Feminism of Shakespeare's Women

2007년 8월 24일

조선대학교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최 승 미

# 셰익스피어의 여성인물에 나타난 페미니즘

지도교수 추 영 식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4월 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최 승 미

# 최승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 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7년 5월 일

조선 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셰익스피어 시대의 사회적 배경 .....	1
II. 가부장적 사회체제에서 여성의 자아의식	
A. 소극적 자아추구: 오펔리어와 거트루드 .....	8
B. 적극적 자아확대: 데스테모나와 이밀리어 .....	34
III. 셰익스피어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	60
참고문헌 .....	63

# ABSTRACT

## Feminism of Shakespeare's Women

Choi, Seung-mi

Advisor : Prof. Choo, Young-sik, Ph.D.

Dept. of English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closely discuss the men' attitudes of treating women in the patriarchal society of Shakespeare's time and the outcome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examining the female characters in *Hamlet* and *Othello* among his other plays.

In Introduction, the Renaissance period where Shakespeare lived was the most powerful patriarchal society than ever, and thereby men treated women as one of their belongings, especially in marriage. In this regard, in-depth analysis on such social background of patriarchal system will be conducted.

In the main subject's Part I 『Ophelia and Gertrude』, mainly discusses

the fact that Gertrude is described negatively, simply because it was consanguineous marriage, even though Gertrude married again in an effort to find a way out of national crisis at the request of the king and vassals.

Ophelia also becomes a means of her father's plot and tragically dies as if she were owned by her father, under the customs of patriarchal society.

In short, the study examines in detail how the two female characters Gertrude and Ophelia confined and marginalized by men face with tragic fate under the patriarchal society.

In the main subject's Part II 『Desdemona and Emilia』, the focus of discussion is on Desdemona and Emilia.

The first half of the play tells us how Desdemona is independent and positive, while she ends in undeserved death by two-dimensional masculine logic of gender toward women, contrary to her desire to be emancipated through marriage, failing to overcome conventional wisdom of patriarchal society of the time.

Meanwhile, although Emilia exhibits clear awareness about who she is and bravery to criticize men for their wrong attitudes toward women, she also finally dies due to double-faced misled values and attitudes of men toward women in patriarchal society filled with prejudice, like Desdemona.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closely investigate and asses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how the values and attitudes of men toward women in patriarchal society affect the life and fate of the four female characters having self-identity awareness in Shakespeare's plays.



## I. 셰익스피어 시대의 사회적 배경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가 생존하여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는 일반적으로 엘리자베스(Elizabeth) 시대와 제임스(James) 1세의 시대를 말한다. 이 시기는 영문학사상 문학 작품이 가장 우수하고 다채로우며, 풍요로운 시기였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종교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도 바뀌어 가고 있는 시기였다. 개신교와 청교도주의의 지나친 고착화로 인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이 다시 대두되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사회 분위기가 어느 시기보다도 고조됨에 따라 진보적 의식의 혼란으로 위계질서가 문란하고 사회적 불안감이 심화되었던 시대였다.<sup>1)</sup>

그 결과 1450년과 1630년 사이에 영국에서는 남성들이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역할 및 남편이라는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이념과 실천적인 뒷받침을 새롭게 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 체제를 더욱 강화 시키게 되었다.<sup>2)</sup>

---

1) David E. Underdown, "The Taming of the Scold: The Enforcement of Patriarchal Authority in Early Modern England," *Order and Disorder in Early Modern England*, Ed. Anthony Fletcher and John Stevenson (Cambridge: Cambridge UP, 1985) pp. 122-26 참조.

2) Lawrence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Penguin Books, 1990), p. 145. Stone은 가부장제 강화의 원인으로 귀족의 후원이 약화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왕의 장려로 교회와 학교, 대학과 가정에서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이 읽히고 연구되었으며, 중세 이후에는 가부장 마

당시의 가부장제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복종을 가정에서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권위에 여성이 불순종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군주의 권위에 백성이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다시 말해, 남성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여성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과 정절은 절대적인 것이며, 여성이 남편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곧 국가를 가정과 동일시하며 가정이라는 소국가의 위계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았다.<sup>3)</sup> 여성은 가부장제라는 사회 환경에서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딸을, 결혼 후에는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는 구조가 이어졌다. 가부장제의 사회 환경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그 지배를 받는 피지배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타자로 인정하는 편견이 지배적이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기보다는 남성이라는 인격이 존재할 때에만 타자로써 여성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의 종속적 인물에 불과했다.

이렇듯, 르네상스 시대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으며, 또한 여성에게는 남성과 같은 동등한 교육이나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상위계층인 귀족 여성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부분적으로 문이 열렸을 뿐, 여전히 순종과 정절을 여성의 가장 큰 미덕으로 간주했다. 여성은 남성에게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이러한 가부장사회에서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sup>4)</sup> 이에 따라 여성의 위치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되지 못하고

---

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가정에 대한 자식들의 강력한 복종을 유도했다고 한다. (pp.109-13참조.)

3) M. P. Tilley, *A Dictionary of the Proverbs in England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New York: AMS, 1950), p. 128.

4) Brown, "A Woman's Place Was in the Home: Women's Work in Renaissance Tuscany," *Rewriting the Renaissance*. Eds. Margaret W. Ferguson, Maureen Quilligan, and Nancy J. Vicke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 211.

비주체적이며 종속적인 인물로 남성중심의 사회에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sup>5)</sup>

이와 같이 여성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남성들처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결혼이 중요시 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순결함을 중요시했다. 이러한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누렸기 때문에 딸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혼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의 권위와 위치는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권리가 남편에게 예속되어 아내는 그의 소유물로 전락한다. 남편의 비위에 맞게 길들여지는 하나의 물건과 다름 아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주체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단지 남성들의 소유물(property)로 여겼다. 영국사회가 문예 부흥기를 맞이하여 여성은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로 모든 권리가 예속되었다. 미망인만이 법으로 그녀 자신의 재산이나 하인들을 처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은 어린아이와 함께 남성에게 예속된다. 그래서 결혼도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결혼이 아닌 정치적, 재정적 관계로 이뤄지는 결혼이었다.<sup>6)</sup> 이렇다보니 부부관계에서도 여성은 마치 신과 군주에게 복종하듯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아내가 만일 이러한 일들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가장 큰 죄악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의 사고방식에 따라, 만약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반항했을 경우, 아내를 심하게 꾸짖고 훈계를 하거나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회개할 때까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주어졌다. 또한 이 방법만이 자신들의 뜻대로 아내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믿음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가부장적 시대가 가지고 있는 남성 우월의식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이분법 사고가 보편화되었다. 즉, 주인과 하인, 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 군주와 백성

---

5) Eaton, "Defacing the Feminine in Renaissance Tragedy." *The matter of Difference: Materialist Feminist Criticism of Shakespeare*. Ed. Valerie Wayn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153-80. p. 187.

6) stone, op. cit., p. 70.

등 지배 복종의 형태로 모든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 기본단위가 되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이 되었다.<sup>7)</sup> 다시 말해서 가부장 사회는 여성의 복종과 정절, 그리고 남성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sexuality)은 이렇게 남성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부장 사회의 남성들에게 위협적인 하나의 힘으로 작용되었다. 특히 제임스 1세는 여성 혐오적인 군주였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당시 여성혐오와 관련한 남성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겠다.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들을 피상적으로 보면, 남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식, 지성 그리고 자율권을 똑같이 누렸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성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일들이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계속되었다.<sup>8)</sup>

엘리자베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인정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도권은 여전히 남성에게 있었다. 이처럼 남성위주의 가부장제 시대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나오는 많은 등장 여성인물들을 보면 최하 계층에서부터 귀족 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유형 및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다.<sup>9)</sup>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등장한 여성 인물들을 다른 작가들의 여성인물들과는 달리 중세시대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분위기에서 적극적이고 자의식이 강한 여성인물들로 묘사되었다.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던 작품들을 여성중심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즉, 여성주의 관점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다시 읽기와 필요성이 최근의 활발한 여성주의 비평이론과 더불어 재검증의 필요성이

---

7) Karen Newman, *Fashioning Feminity and English Renaissance Drama* (Chicago UP, 1991), 13-32.

8) 박소연, “셰익스피어의 여성들,” 배재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학위논문(1999), pp.4,7. 재인용.

9) 박소연, “셰익스피어의 여성들,” 배재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학위논문(1999) p.5. 재인용.

고조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체제에서 주로 왜곡되고 억압받는 여성으로 그려지는 편견과 부정적인 여성의 이미지에 반기를 들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성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를 여성인물들을 내세워 비판하고 있다.

마리안 노비(Marianne Novy)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속의 여성인물들과 비극속의 여성인물들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Feminist critics have suggested that Shakespeare's comedies, with their affirmation of wit and flexibility, validate women's strength while the tragedies emphasize male struggles that ultimately victimize women. Loyal, funny, and beautiful Beatrice, bold and courtly Rosalind, brilliant and brave Portia celebrate female energy. But Desdemona's death, like Ophelia's suicide, shatters our dream of a self-determined, joyous, and healthy life. Even in the comedies, feminist critics note the limited roles of women characters who gain only one reward: marriage.

셰익스피어의 희극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 중 베아트리스, 로잘린드, 포샤 등은 탁월한 기지뿐만 아니라 유연함, 강인함, 용기 등 여성적 이미지가 충만한 인물들로 그려진다. 그러나 비극 작품에서는 데스데모나의 죽음, 오펔리어의 자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결정한 기쁨과 건강한 삶에 대한 꿈이 산산이 부서진다. 그것도 죽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희생의 제물이 되고 있다. 이들의 지혜나 강인한 의지는 결혼을 통해 행복과 건강한 삶으로 보상 되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의해 제한된 성격으로 묘사되어

지고 있다.<sup>10)</sup>

이와 같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얼핏 보면 남성들의 부수적인 역할로 묘사된다. 물론 그의 작품에는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문화가 깔려 있기는 한다. 그러나 남성 인물들의 시각을 통해 왜곡되어진 여성상을 주로 부각시켜 여성의 존재방식을 재정립하려는 의도가 깊이 깔려 있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다움은 남성이 요구하는 순한 양과 같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을 여성의 온전한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의 남성들의 권위는 여성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진다. 특히 비극작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에서 줄리엣은 아버지가 정해 놓은 사람과의 결혼을 피해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부장사회라는 장애물로 인해 그들의 사랑은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이 나며, 『맥베스』(*Macbeth*)에서도 왕의 권력을 갖기 위해 맥베스 보다도 맥베스 부인이 더 욕심을 드러낸다. 그녀는 그 권력을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맥베스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잔인하고 처참한 일들도 외면한 채 적극성을 보이지만 가부장제 사회였기에 여성에게는 불가능했던 지위와 권력 등, 그녀가 펼칠 수 없었던 자신의 야망을 남편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자 의도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는 그저 남자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했기에 맥베스 부인의 행동들을 악한 마녀와도 같은 이미지로 보게 되며, 『리어왕』(*King Lear*)에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갖기 위해 고네릴과 리건, 두 딸의 끝없는 야망과 욕심이 결국 그들 자신들을 파괴시키는 부정적인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비극의 여주인공들은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부정적

---

10) Marianne Novy, *Women's Re-Vision of Shakespea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0), p. 212 참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회 배경으로 인하여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다. 중세와 근대에 발표되었던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 본 여성의 모습들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남녀 위상을 여성주의 비평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 하려는 것은 당연한 추세가 아닌가 한다.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사회 속에서 여성은 많은 억압과 고통을 겪어왔다.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주의 사회의 폐습인 가부장적 사회의 관습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가정에 머물러 살림이나 잘하고 정숙한 요조숙녀로 길들여지기를 강요했다. 이것은 남성의 권리와 지배를 당연시 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는 가부장제도의 여성 차별화가 아닌가 한다.

이 논문에서는 『햄릿』(*Hamlet*)과 『오텔로』(*Othello*)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물들을 중심으로 문예부흥기의 가부장적 사회체제하에서 여성인물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셰익스피어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이러한 논문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 I 장에서는 햄릿이라는 남성의 눈을 통해 보여진 거투루드(Gertrude)와 오펔리어(Ophelia)의 자아의식에 초점을 둘 것이다. 제 II 장에서는 적극적인 자아를 실현하려는 여성인물들로 『오텔로』에 등장한 데스테모나(Desdemona)의 적극성을 부각시키고 이밀리어(Emilia)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자아완성을 시도하는 현대적인 여성상으로 강조하였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햄릿』 작품 속에서 소극적이었던 여성인물들의 성격이 『오텔로』 작품 속에서는 좀 더 당당하고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성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강조 하겠다. 따라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셰익스피어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를 재평가 하고자 한다.

## II.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도전의식

### A. 소극적 태도로 자아상실: 오펔리어와 거트루드

『햄릿』(*Hamlet*)작품은 어떤 인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뤄지느냐에 따라 작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햄릿(Hamlet)의 관점에서 보면 복수의 비극이다. 오펔리어(Ophelia)의 관점에서 보면, 신뢰하고 믿었던 햄릿과의 사랑에서 자신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갑자기 냉대 받게 되는 점에서는 사랑의 실패이며, 거트루드(Gertrude)와 오펔리어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사회 배경으로 인해 남성들의 힘에 좌지우지 되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던 점에서 본다면 여성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이 작품은 비극이며, 그 당시 가부장제 사회배경으로 인한 여성의 수동성과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가부장제 사회배경 속에서의 남성인물들과 여성인물들의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햄릿』은 덴마크의 성 엘시노 궁전을 배경으로 보초를 서던 보초병들이 옛 선왕의 혼령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햄릿은 선왕이신 아버지의 죽음 후에도 계속 안색이 어둡고 슬픔을 감추질 못한다. 그런 햄릿을 단지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만 보고 있는 숙부인 현왕 클로디우스(Claudius)와



어머니이자 숙모가 되어 버린 거트루드, 그러나 햄릿의 어둠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실망에 있었다. 이 작품의 비극은 가족관계에서 비롯되어진다. 부모와 자식간에 책임감과 의무감속에서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데 성의 요소가 관련되어져 나타나 있다. 어니스트 존스(Ernest Jones)는 햄릿 비평에서 이상하게도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극에 대한 하나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특별한 의미에서의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의 본질 관계에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11)라고 하였다.

햄릿에서 거트루드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여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그녀가 선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급하게 다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국가 위기로 인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2) 그러나 햄릿의 눈을 통해 보여 지는 거트루드는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선왕의 유령이 나타난 이후, 햄릿은 어머니 거트루드를 극도로 부도덕한 인물로 단정 짓고 있다. 선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햄릿을 달래는 장면에서 거트루드는 “생자필사라 했으니 누구나 한 번은 이승에서 영겁의 세계로 떠나는 법이라며 죽음이란 흔한 일이다”(Thou know'st 'tis common, all that lives must die, Passing through nature to eternity. 1막 2장 72-73행. \*이후부터는 막. 장. 행자는 생략함.)라고 말한다. 햄릿은 이 말에 “그건 그렇지요(It is common)”라고 답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it”의 표층적 의미는 “죽음”이지만 햄릿이 어머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it”은 “결혼”을 암시하고, “common”은 속되다, 천박하다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재혼은 천박한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1막 2장에서 햄릿은 어머니가 한달도 채 못 되어 재혼한 것이라고 네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햄릿의 제1 독백 첫 행은 그의 부패한 세상에 대한 역겨움과 더러운 어머니

11) Ernest Jones, *Hamlet and Oedipus* (London: 1949), p. 60 참조.

12) Carolyn, Heilbron. "The Character of Hamlet's Mother," *Shakespeare Quarterly* 45, August 1957: 8.

13) 김종환 역주. 『햄릿』. 셰익스피어 저.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8.

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한 육신의 불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그의 마음을 햄릿은 거트루드를 다음과 같이 말하며 여성의 허약함을 비난한다.

“어머니는 또 얼마나 아버지 곁을 붙어 다녔던가,  
마치 사랑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듯이.  
그런데 한 달도 못 되어, 아니 생각지 말자.....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겨우 한 달,  
니오베 여신처럼 눈물에 젖어 가엾은 아버님의 영구를  
따라가던 그 신발이 미처 닳기도 전에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 알 수 없는 일, 이성의 분별이 없는  
짐승일지라도 그보다는 슬픔이 오래 갔을 거다 ——  
아버지의 동생인 저 숙부와 결혼을 하다니,”(1.2. 143-151)

why, she would hang on him  
As if increase of appetite had grown  
By what it fed on, and yet within a month -  
Let me not think on't; frailty, thy name is woman -  
A little month, or ere those shoes were old  
With which she followed my poor father's body  
Like Niobe, all rears, why she, even she -  
O God, a beast that wants discourse of reason  
Would have mourned longer - married with my uncle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와 햄릿의 관계에서 현명한 여성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종종 약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것은 엘리자베스 시대가 여성의 수동적인 모습을

가진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퀘넬(Quennell)은 주장하고 있다.<sup>14)</sup>

선왕이 죽었을 때 거트루드는 남편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는 아내였으며, 슬퍼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성의 상징이기도 한 니오베처럼 온통 눈물에 젖어 가엾은 선왕의 시신을 따라가는 장면에서는 정숙한 부인의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못 되어 근친상간의 추악한 참자리로 뛰어 들어가면서 거트루드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햄릿에게는 큰 충격이며 아픔이 되어버리는 거트루드의 재혼은 자식과 부모간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며, 그녀의 근친상간의 결혼은 햄릿에게 선왕의 복수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선왕이 죽고 난 후 거트루드가 햄릿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궁중에서 바뀌어진 그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말에서 그녀는 전 남편에 대한 기억과 햄릿의 고통스런 마음을 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햄릿, 그 어두운 상복을 벗어 버리고 쾌하게

좀더 정답고 부드러운 눈길로 대하거라.

언제까지나 그렇게 눈을 내리깔고 돌아가신 아버님만

흠모할 것이 아니다. (1.2. 68-71)

Good Hamlet, cast thy nighted color off,

And let thine eye look like a friend on Denmark.

Do not forever with thy veiled lids

Seek for thy noble father in the dust.

이처럼 그녀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빨리 적응하며

---

14) Peter Quennell and Hamosh Johnson, *Who's Who in Shakespeare* (London: Routledge, 1996), p. 84 참조.

모든 상황에 타협하여 적절히 대처한다. 도든(Dowden)은 이러한 거트루드의 행동에 대해 “거트루드는 부드럽고 육감적이며 모든 것에 약한 여성으로 빗대어지며 안정적인 사랑을 하고자 하는 여왕이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여성이다.”(The Queen who is soft and sensual, a lover of ease, with all a little, and therefore incapable of genuine passion.)<sup>15)</sup>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오브라이언도 거트루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With Gertrude we are met by one of those natures which perplex, not from depth but sallowness, people who seem hypocritical, but are more truly changeable, and therefore utterly puzzling to steadier minds. ... she is a pretty, good tempered woman, with graceful manners, softly easy going, desiring above everything to have all comfortable around her.<sup>16)</sup>

거트루드에게서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도, 깊이 있는 것도, 아닌 복잡한 본성들 중의 하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적법하게 변할 수 있기에 그들의 확고한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다...

거트루드는 아름답고 좋은 성품의 여인으로 우아한 기품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을 쉽게 수용하고 그녀 주위의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하는 여인이다.

---

15) Edward Dowden, *Shakespeare :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1881; rpt. New York, 1918), p. 135.

16) Ann Thompson and Sash Roberts, (ed.), *Women Reading Shakespeare 1660-1900*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p. 73.

선왕의 죽음과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트루드의 행동뿐만 아니라 햄릿은 선왕의 죽음에 궁중사람들이 보이는 걸치레뿐인 슬픔에 분개하면서 진정한 그의 슬픔이 무엇인가를 어머니에게 일깨워 준다.

어머니, 소자의 어깨에 걸친 이 새까만 외투도,  
소자가 입고 있는 의례적인 검은 상복도, 맺돌질하듯  
갈아내는 무거운 한숨도, 아니 나를 이루듯 샘솟는  
눈물도, 수심에 찬 풀죽은 얼굴 모습도, 그밖의 슬픔을  
나타내는 천태만태의 모양이나 표정, 그리고 온갖  
걸치레도, 소자의 진정을 드러내기엔 미흡합니다.(1.2. 76-83)  
'Tis not alone my inky cloak, good mother,  
Nor customary suits of solemn black,  
Nor windy suspiration of forced breath,  
No, nor the fruitful river in the eye,  
Nor the dejected haviour of the visage,  
Together with all forms, moods, shapes of grief,  
That can denote me truly.

선왕이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와 그토록 다정했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숙부와 재혼했다. 햄릿에게 충격적이며 이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불신감으로 자리 잡게 된다. 더 나아가 오펔리어가 그에게 위협한 존재로 부각되어 버리는 것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햄릿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거트루드와 오펔리어, 즉 여성들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거트루드가 클로디어스와 결혼함으로써 햄

릿의 성에 대한 육체적인 심한 거부반응과 우울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1774년에 리차드슨(William Richardson)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The impropriety of Gertrude's behavior, her ingratitude to the memory of her husband, and the depravity she discovers in the choice of successor, afflict his [Hamlet's] soul, and cast him into utter agony. Here then is the principle and spring of all his actions.<sup>17)</sup>

거트루드의 행동에 대한 잘못은 그녀의 전 남편에 대한 망각과 후계자의 선택에 대한 부패를 발견하게 되면서 햄릿의 마음을 괴롭혔으며 전적으로 심한 고통을 그에게 던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햄릿의 모든 행동에 대한 근원이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트루드가 근친상간의 결혼을 함으로써 햄릿의 가족관계를 바꾸어 놓았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믿음과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햄릿은 “잠재적 비관주의”(implicit pessimism)<sup>18)</sup>가 생겨나게 된다. 햄릿은 어머니의 근친상간 결혼으로 인해 거트루드를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의 대명사로 보게 된다.

간악한 행동으로 여인의 정숙함을 짓밟았고 정결한  
부덕을 위선으로 불리게 했으며, 청순하고 아름다운  
이마에서 장미꽃을 떼어버리고 대신 수치로 벌레 먹게  
했고 백년해로의 서약을 백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3.4. 40-45)

Such an act

---

17) William Richardson, *A Philosophical Analysis and Illustration of Some of Shakespeare's Remarkable Characters* (London, 1774), (New York, 1966), p. 94.

18) J. M. Robertson, *The Problem of Hamlet*, (London, 1919), p. 73.

That blurs the grace and blush of modesty  
calls virtue hypocrite, takes off the rose  
From the fair forehead of an innocent love  
And sets a blister there, makes marriage vows  
As false as dicers' oaths.

어머니와 숙부의 결혼은 근친상간이다. 이 점에서 햄릿에게 결혼은 곧 여성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로만 여겨졌던 것이다. 나중에 햄릿이 오피리어에게 결혼을 하지 말고 수녀원으로 가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혼에 대한 관념, 즉 여성이 결혼을 통해 육체적 순결을 상실하고 정신적인 순결을 잃게 된다는 생각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햄릿이 어머니를 창부나 다름없는 여자로 내몰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의 비명의 죽음에 충격적인 비탄에 빠져 있기보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재혼해버린 어머니의 당돌한 태도 때문이다.

거트루드는 햄릿에게 더 이상 정숙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햄릿에게 세상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한 여자로 비쳐지고 있다. 1막5장에서 햄릿은 아버지의 유령으로부터 클로디어스의 음모를 들었을 때 어머니 거트루드의 부정을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아, 하늘이여! 아아 참으로 양칼진 여자로다!  
아마— 아아 악당, 악당, 미소까지 짓는 저주 받을  
악당! 내 수첩에 확실히 적어두자. (무언가 적는다)  
아무리 미소 짓는다 해도 악당은 악당이다. 적어도  
덴마크에서는 확실히 그렇다....”(1.5. 104-109).

by heaven!

O most pernicious woman!

O villian, villian, smiling damned villian!

My tables - meet it is I set it down

That one may smile, and smile, and be a villian;

At least I'm sure it may be so in Denmark. [Writing]

햄릿은 거트루드를 양칼진 여자라고 하면서 악한은 악한으로 대하겠다고 하늘에 두고 복수를 맹세한다.

거트루드는 고약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 아니며, 살인이라는 것은 그녀에게 전혀 생각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양지에 사는 한 마리의 양처럼 행복 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결혼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거트루드는 햄릿이 그녀의 방에서 그녀를 비난할 때까지 자신이 행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근친상간의 결혼을 했고, 그 일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으며, 햄릿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상처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 그녀에게는 클로디어스가 덴마크의 왕이며 햄릿의 아버지이다. 단지 햄릿만이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트루드의 결정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트루드는 햄릿의 친아버지를 부정하는 “햄릿, 너 때문에 아버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을 하여 햄릿을 책망한다. 그러나 그녀는 선왕에 대한 망각 때문에 햄릿이 “제 아버님은 어머니 때문에 진노가 대단하시죠.”(Gertrude: Hamlet, thou hast thy father much offended./ Hamlet: Mother, you have my father much offended. 3.4.9-10)라고 반격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어쨌든 햄릿은 어머니의 간통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햄릿 자신도 더럽혀진 것으로 믿고 있다. 햄릿은 거트루드의 욕망을 동물 이미지와 연관시킨다.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도 못되어 재혼을 한 그녀는 햄릿에게 “이성이 없는 짐승일지라도”(1.2. 150)라는 표현으로 햄릿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또 2막에서 햄릿은 거트루드의 결혼의 불결함을 “신의 썩은 고기에 입맞춤” (God kissing carrion)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죽은 동물의 이미지에 비유한다.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에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으로



서가 아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조건 재혼함으로써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무력한 수동적 존재이다. 거트루드의 비극은 바로 가부장적 관념의 희생물이다. 오랜 세월을 덴마크의 왕비로 있었지만 남편인 햄릿 왕이 갑자기 사망한 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기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 클로디어스가 거트루드를 왕비로 선택한 본심을 숨긴 외적인 그의 목적은, 전쟁 준비를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왕비가 있는 왕실의 안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한 것 때문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 신하들의 훌륭한 조언을 참고해서 했다는 것이다.(Therefore our sometime sister, now our queen, Th'imperial jointress to this warlike state,/ Taken to wife; nor have we herein barred Your better wisdoms, which have freely gone With this affair along - for all, our thanks. 1.2. 8-9, 14-16)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가 햄릿의 부왕을 독살한 것을 몰랐던 것 같다. 햄릿이 폴로니어스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 거트루드가 잔인하고 끔찍한 짓이 아니냐고 나무라자, 햄릿은 왕을 죽이고 왕의 동생과 결혼한 것과 피장파장이라고 말하자, 거트루드는 “왕을 죽이다니!”(A bloody deed? Almost as bad, good mother, As kill a king and marry with his brother. 3.4. 28-29)라고 놀라서 묻는다. 그러한 그녀의 질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클로디어스는 첫 공식 연설에서 거트루드를 왕비로 맞는 데는 조정 신하들이 조언했다고 밝혔는데, 그들을 대표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바로 클로디어스의 충실한 신하인 폴로니어스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부장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선왕의 왕비인 거트루드의 재혼은 햄릿이나 선왕의 혼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트루드의 지나친 성욕 때문이 아닌 클로디어스의 “사악한 지혜와 음흉한 간계이었다.”(With witchcraft of his wits, with traitorous gifts-. 1.5. 43), 갑작스러운 선왕의 승하가 왕국을 전쟁의 위협에 빠지게 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왕의 자리와 왕비를 차지하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햄릿은 어머니의 재혼이 그녀의 성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선왕의 혼령을 통해서 클로디어스의 욕심에서 비롯된 형제

살인, 근친상간 결혼, 왕위찬탈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한 덴마크왕국의 부패상을 알게 된다.

극중 극의 왕비는 “재혼을 하느니 차라리 저주를 받겠어요. 남편을 살해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재혼을...”(In second husband let me be accurst: None wed the second but who killed the first. 3.2. 160-161)하고 말하자 햄릿은 “쓰디 쓰구나”(That’s wormwood, wormwood. 3.2. 162)라는 반응을 보이고 극중 왕은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사랑까지도 운명과 더불어 변화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오”(This world is not for aye, nor ’tis not strange/ That even our loves should with our fortunes change,/ For ’tis a question left us yet to prove,/ Whether love lead fortune, or else fortune love. 3.2. 181-184)라고 말함으로써 거트루드의 재혼의 동기에 대한 의문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복다노프(Michael Bogdanov)는 왕비라는 자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력의 원천(sources)에 가깝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트루드도 권력을 잡은 새 왕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9)</sup> 그리고 거트루드의 재혼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클로디어스와 신하들의 설득에 의한 것 - 즉, 갑작스러운 선왕의 죽음 때문에 전쟁위기를 맞은 덴마크 왕국의 국가적인 평안을 위해서는 오랜 세월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그녀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재혼을 선택했을 것이다.

극중 극을 관람한 후에 폴로니어스는 왕비 거트루드에게 햄릿을 단단히 꾸중하라고 지시한다. 햄릿의 장난이 지나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과 어머니가 중간에서 왕의 역정을 간신히 막아냈다고 얘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방장 뒤에 숨어서 모자사이의 얘기를 엿들겠다고 한다. 햄릿이 어머니 거트루드의 내전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누군가가 엿들어야 한다고 한 폴로니어스는 거트루드와 햄릿을 감시하기로 한다. 휘장 뒤에 숨어서 엿듣기를 하다가 인기척을 낸 폴로니어스를, 왕이라고 착각하고 분노와 상실로 흥분해서 살해한 직후, 햄릿은 어머니 거트루드의 결혼과 타락

19) Michael Bogdanov, "Is Shakespeare Sexist?" *Is Shakespeare Still Our Contemporary*, Ed, John Elso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pp. 70-71 참조.

한 어머니의 성욕 때문이라 생각하며 아들로서 할 수 없는, 어머니에게는 상처가 될 말들을 퍼붓는다.

이와 같이 신하가 왕비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고, 옛듣기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부패된 덴마크 궁정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시대의 왕비의 위상이 어떠한 지를 말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햄릿이 말을 걸자, 그녀는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공기와 얘기를 하고, 눈에 선 미친 듯한 마음이 보이며 곱게 빗은 머리칼이 다 곤두서고 있어 걱정이 되어서, “열에 들뜬 네 마음에 냉정한 인내심을 되찾아 다오”(O gentle son, Upon the heat and flame of thy distemper/ Sprinkle cool patience. 3.4. 121-123)라며 달랜다. 바로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아들이 가슴 도려 낼 듯이 어머니인 자신의 현 상황을 마구 비난하며 괴롭히고 모욕을 주었는데도, 그녀는 오히려 아들의 마음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어머니가 자기를 실성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녀에 대한 자기의 비난을 헛들을까봐, 햄릿은 제발 앞으로는 과거를 누우치고 미래의 죄악을 피하라며 부탁한다. 거트루드는 햄릿이 미치지 않았고, 그의 모든 괴로움이 어머니인 자신의 재혼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듣자,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아 햄릿, 네가 내 심장을 두 쪽으로 쪼개는 구나”(Oh Hamlet, thou hast cleft my heart in twain. 3.4. 157)라고 고백한다. 거트루드는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의 수동적, 제한적인 역할 때문에 이중적인 괴로움을 겪는다. 아들로부터 비난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재혼과 현 남편인 클로디어스에게 순종해야만 되는 아내로서의 의무사이의 갈등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햄릿은 어머니에게 한 마디 더 빈정대는 투로 말한다. “아름답고, 진실 되고 현명하신 왕비”(For who that’s but a queen, fair, sober, wise 3.4. 190)시니까,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척하는 것이라며 비밀을 말하게 되면, 왕비 자신도 위험해진다는 암시를 준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은 비주체적이며 수동적 존재이다. 결혼

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나 가문간의 결정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남자들의 권한이었다. 거트루드의 재혼도 그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클로디어스의 왕의 자리를 갖기 위해 왕국에 전쟁의 위협이 있다는 다급한 상황을 내세워 조정 신하들과 협의 하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가부장 사회 남자들의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적 관념에서 나온 여성 혐오는 거트루드의 재혼을 타락한 욕정이라는 관점으로만 보아서, 햄릿에게 여성 혐오적인 언어만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거트루드는 죄의식으로 가슴 아파한다. 그러나 가부장 사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아들에 대한 사랑과 가부장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의무와의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클로디어스는 폴로니어스의 죽음에 대해 레어티즈에게 누구보다도 애통해한다고 말하지만, 클로디어스는 그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클로디어스는 레어티즈에게 폴로니어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은 무죄라고 밝혔지만 엄밀히 따져본다면, 클로디어스에게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들의 얘기를 제 3자가 엿듣는 것이 좋겠다고 폴로니어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왕은 레어티즈를 자기편으로 만들었다. 클로디어스는 레어티즈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리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죄가 있는 곳에 정의의 도끼를 쳐라”고 한다. 클로디어스의 사악한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는 레어티즈의 아버지를 살해한 자가 햄릿이니까 그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지만, 자신의 죄는 뒤로 감추고 단지 햄릿의 복수가 두려워 그를 제거할 수 있는 묘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속으로 클로디어스는 햄릿이 영국에 도착하는 즉시 영국 왕에 의해 처형되리라고 생각하며 레어티즈를 달래고 있었는데, 그 때에 햄릿이 영국으로 가다가 사정이 생겨서 덴마크로 다시 돌아왔다는 전갈을 받는다. 그러자 클로디어스는 왕비도 알아채지 못하게 햄릿을 죽일 계획을 꾀한다. 레어티즈와 햄릿을 칼 솜씨 겨루기를 시키고, 레어티즈는 살해된 아버지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칼끝에 독을 발라 햄릿에게 치

명상을 입히겠다는 것이고, 클로디어스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햄릿의 승리를 비는 축배를 그에게 줄 때 그 포도주 잔에 독을 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독배는 거트루드가 마시게 되고 끝까지 거트루드는 아들 햄릿을 걱정하며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죽는다. 이것이 그녀가 가부장 사회에서 왕비라는 지위에 있더라도 남성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무력한 모습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던 그녀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또 다른 비극의 여성인물은 오펜리어이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햄릿의 부정적인 여성의 시각 때문에 그녀의 사랑에 대해 햄릿으로부터 나쁜 선입감을 받게 된다. 어머니의 성적 타락을 목격한 햄릿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되고 오펜리어에 대한 그의 생각도 바뀌게 된다. 사랑하는 오펜리어에게 햄릿은 “왜 그대는 죄 많은 인간을 낳고 싶어 하오”(Get thee to a nunnery - why wouldst thou be a breeder of sinners? 3.1 119-120)라고 말한다. 어머니에 대한 여성혐오는 애인인 오펜리어에게 이어지고 마침내는 모든 여성에게까지 연결된다.

그러나 오펜리어에게 있어서 햄릿과의 사랑은 그녀의 자아를 확인하고 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오펜리어의 자아는 가부장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아버지와 오빠에게 그녀의 자아확인 은 커녕 오히려 그 자아를 원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그녀는 가부장사회로 인해 불확실한 자아상태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내면적인 자아로 뒷걸음친다. 그리하여 햄릿과의 “달콤한 사랑의 맹세를 빨아들었던” 사랑을 확신했던 오펜리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다니”(There’s something in his soul/ O’er which his melancholy sits on brood, 3.1 158-159), 그 결과 그들의 사랑은 “분명 난 얼마 안가서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소”(Faith, I must leave thee love, and shortly too: 3.2. 154)처럼 짧은 사랑이 되어 오펜리어의 자아는 실현되지 못한 채 가부장사회의 희생물이 되어 버린다. 즉 자아를 확신하지만 그 당시 가부장사회라는 복종, 억압, 통제라는

장벽에 의하여 자아가 무너지는 인물이다. 오페리아의 내면적인 자아는 햄릿의 달콤한 사랑의 맹세에 의해서 확신되지만 햄릿은 거트루드에게서 확인한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오페리아의 사랑마저 부정하자 내면적인 자아의 혼돈을 겪게 된다. 이러한 오페리아에 대하여 러스킨은 그녀의 비극적인 결과를 그녀의 자질상의 문제로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Observe that among all the principal figures of Shakespeare's plays there is only one weak woman, Ophelia, and it is because she fails Hamlet in the critical moment, and cannot in her nature be a guide to him when he needs her most, that all the bitter catastrophe follows ... 20)

셰익스피어 극작품의 모든 주요한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한 여성은 오페리아이다. 그 이유는 햄릿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그리고 모든 가혹한 재난의 위기의 순간에 그녀가 햄릿을 붙들어 주는데 실패하여 그가 그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의 자질로 그를 인도하지 못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비록 그녀는 약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회 구조상의 문제일 뿐 그녀는 확실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그녀의 적극성만 있었다면 충분히 햄릿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길크리스트 또한 오페리아를 자아가 확실한 인물로 보아 햄릿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대하여 같은 논지를 펴고 있다. 햄릿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진실했고, 햄릿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었지만 그가 없는 사랑은 오페리아에게는 자신의 자

20) John Ruskin, *Sesame and Lilies*, ed. [1865], reprinted in *The Literary Criticism of John Ruskin*, Harold Bloom, (New York: Da Capo Press, 1965), p. 58.

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녀의 자아는 무너지고 만다.

Ophelia's love had root, not in her fancy love but in the very fibre of her heart; her reason was destroyed by her efforts to conceive of and support life without Hamlet. Such a love could blossom only, and would have bloomed for Hamlet only.<sup>21)</sup>

오펔리어의 사랑은 공상적인 사랑도 아닌 그녀의 마음속에서 우리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성엔 햄릿 없이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 그러한 그녀의 사랑은 유일한 아름다움일수 있었고 오직 햄릿을 위한 꽃이었던 것이다.

오펔리어에게 있어서 가부장 사회는 적극적인 여성으로서 나아가기 힘든 “험한 가지밭길”이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오빠인 레어티스(Laertes)와 아버지인 폴로니어스는 정상적인 그녀의 이성으로 읽어낸 햄릿의 진실한 사랑을 그 사회의 통념적인 사랑으로 변질시켜 한순간의 객기 내지는 청춘의 혈기로 깎아내림으로써 그의 오빠는 보배로운 정조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마음을 잃지도 말아야 하며 심지어는 아름다움을 달님 앞에 보이지도 말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오빠에게 오펔리어는 그의 요구를 “이 가슴속에 잠가놓고 자물쇠는 오빠에게 맡긴다”고 (‘Tis in my memory locked, And you yourself shall keep the key of it. 1.3. 86-87)말한다. 즉 오펔리어의 ‘여성성’은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여 빼앗긴 채 가지 먼류관을 씌어 그녀의 가슴속에 가두어 두게 된다. 따라서 그녀는 사회적으로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오펔리어의 자아는 햄릿의 사랑을 “진실한 사랑”(love in honorable fashion: 1.3. 111-112)으로 감지했으며 하늘에 대한 맹세의

21) John Gilchrist and Fredericka Beardsley. *The True Story of Hamlet and Ophelia*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89), p. 211.

말이 담긴 표정에서 햄릿의 진실한 애정을 읽어낼 만큼 자아가 있는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오펔리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더 이상 왕자님과는 만나서도, 이야기를 건네지도 말라며 명령함으로써 그녀의 자아는 아버지에 의해서 부정성을 당한다.

“왕자님의 맹세는 믿을게 못되며 뚜쟁이 말이나 다를 바  
없다. 아름다운 걸치레하고는 너무도 판이 하단다.  
단지 부정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스럽고 경건한 인품을  
갖춘 척 그런 말솜씨로 여인을 속인단다.”(1.3 128-132)

Do not believe his vows, for they are brokers,  
Not of that dye which their investments show,  
But mere implorators of unholy suits,  
Breathing like sanctified and pious bonds,  
The better to beguile. This is for all:  
I would not in plain terms from this forth  
Have you so slander any moment leisure  
As give words or talk with the Lord Hamlet.

즉 그녀의 자아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펔리어는 외면적으로 아버지에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가부장 사회에서는 사랑도 결혼도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남성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오펔리어의 오빠인 레어티스도 그 시대가 강조하는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며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왕자님의 달콤한 사랑의 노래에 슬깃해져 넋을 잃고  
 무턱대고 너의 그 보배로운 정조를 내주는 날엔  
 너의 명예는 건딜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유념하거라. 알겠느냐, 오펔리어. 조심하는 거다.  
 정욕의 화살이 꽃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칭순한 처녀는 아름다운 살갓을 달님 앞에  
 보여주는 것조차 계면쩍어 한다’하지 않느냐.(1.4. 29-37)

Then weigh what loss your honor may sustain  
 If with too credent ear you list his songs,  
 Or lose your heart, or your chaste treasure open  
 To his unmastered importunity.  
 Fear it Ophelia, fear it, my dear sister,  
 And keep you in the tear of your affection,  
 Out of the shot and danger of desire.  
 The chariest maid is prodigal enough  
 If she unmask her beauty to the moon.

여성의 미덕으로서의 순결은 성적인 순결을 의미한다. 여성이 순결해야만 미덕을 갖춘 여자가 되지만 순결을 잃게 되면 다른 모든 미덕도 상실된다고 여겼기에 순결은 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러나 폴로니어스는 순결의 중요성이나 오펔리어의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 햄릿왕자가 “여러 번 애정을 토로하셨다”(He hath my lord of late made many tenders/ of his affection to me. 1.3 99-100)고 오펔리어가 말하자, 폴로니어스는 그것을 믿느냐고 비웃으면서 돈 거래로 빗대어 말한다. “가짜 돈과도 같은 애정을 진짜 보화로 알다니

너 정말 젓먹이로구나. 좀더 비싸게 처신하란 말이다.”(Think yourself a baby That you have tane these tenders for true pay,/ Which are not sterling. Tender yourself more phrase,/ Roaming it thus - you'll tender me a fool. 1.3. 105-109)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자기중심적이며 물질적 가치와 자신의 체면을 딸의 감정이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하나의 물건 취급을 하며 재정적 관계로 딸의 결혼을 관련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시 되는 부분이었다.

오필리어가 아버지에게 햄릿 왕자가 “저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구하셨습니다”(My lord, he hath importuned me with love In honourable fashion. 1.3. 110-111)라면서, “티끌만치도 거짓은 없다고 하늘에 맹세하였다”(And hath given countenance to his speech, my lord,/ With almost all the holy vows of heaven. 1.3. 113-114)라고 하자, 스스로가 겉과 속이 다르게 이중적인 처세를 하고 있는 폴로니어스는 햄릿도 그럴 것이라 짐작하고는, 앞으로는 “혼전의 규수로서 몸가짐을 홀하게 굴지 마라하며, 좀더 값비싸게 처신하라”(Be something scancer of your maiden presence. 1.3 121-123)라면서, “그의 맹세는 믿지 말아라”(Do not his vows. 1.3.127)라고 훈계한다. 오빠 레어티즈에게서 오필리어는 햄릿은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할 수도 있으니 처녀의 명예인 정숙함을 잃지 않도록, “사랑에서는 뒷전에 물러앉아 위험한 정욕의 화살이 쏘이지 않도록 경계하라”(And keep you in the rear of your affection,/ Out of the shot and danger of enough 1.3. 34-35)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는 무조건 아버지나 오빠의 훈계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 된다. 그러나 남녀 관계에 대해서 딸이나, 여동생에게 이러한 훈계를 하는 남자들은 남자들의 맹세란 걸 다르고 속 다른 것이라는 이중적인 행동방식을 당연시 한다.<sup>22)</sup> 아버지와 오빠에게서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당연시하는 훈육을 받은 오필리어를 자신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무력한 상황에 빠져서, 아버지나 오빠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짓 자아’의 역할을 하며 이후부터 햄릿과 아무런 말도

---

22) Leverenz, op,cit., p. 118.

나누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그렇게 하겠습니다”(I shall obey, my lord. 1.3. 136)라고 복종한다.

이와 같이 오피리어는 가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이고 있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부모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녀들의 복종을 요구했으며 오피리어가 폴로니어스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거나 마지못해 대답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얼마나 그의 아버지가 엄격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녀의 자아에 대한 불신은 햄릿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용기를 감소시키므로 외면적으로는 순종적이고 복종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감정과 희망에 대한 두려운 생각들을 마음속에 숨기는 여성으로 만들었다. 그 시대의 관례에 따라 아버지에게 순종했을 뿐 그녀의 자아는 분명했다.

여기에서 오피리어의 성격을 두 단계로 묘사해 볼 수 있다. 먼저, 그녀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이상적인 성격을 지닌 여성이다. 둘째, 그녀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여성들이 따라야 할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이상적인 그녀의 성격은 우리가 그녀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윌슨 나이트(G. Wilson Knight)는 오피리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Throughout Ophelia is innocent, sweet, loving. She suggests an absolute ideal of innocence and purity. But she has at first no active, assertive power. She is reflection of Hamlet's own potentiality for romance : something circumstance has crushed. <sup>23)</sup>

오피리어는 시종일관 결백하고 암전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그녀는 순결하고 결백함에 대한 더 없이 이상적인 여성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보다도 어떤 적극성도, 자기주장을

---

23) G. Wilson Knight, *The Imperial Theme* (London: 1965), p. 114.

펼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녀는 사랑에 대한 햄릿과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다 그 상황에 무너지게 된다.

오페리아는 이상적인 여성이 지녀야 할 아름다움도 지니고 있지만 그녀의 이러한 아름다움은 햄릿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혐오감을 던져주는 이중적인 감정의 원인이 된다. 순결한 오페리아는 불행히도 클로디어스와 폴로니어스에게 이용당하고 만다. 왕과 폴로니어스는 오페리아를 이용하여 햄릿의 마음속의 비밀을 엿보려고 했던 것이다. 폴로니어스와 클로디어스의 계략에 이용되는 오페리아는 햄릿과 우연한 만남을 만들기 위해 핑계를 준비해 낸다. 사랑의 증표를 되돌려 주려는 계획은 복수와 함께 그녀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사랑을 억제하며 그녀가 그를 만나기를 거절하고 그의 편지를 돌려보냄으로써, 이미 어머니의 재혼을 통해 본 여성의 가치에 실망을 한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그의 선물마저 반환할 뿐만 아니라 왕과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햄릿을 속이려고 한다. 이리하여 오페리아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두 사람의 도구가 되고 만다. 아버지 폴로니어스가 명령하는 대로 햄릿에게 받은 편지들 모두 돌려보내고 햄릿과의 만남을 회피한다. 아버지 폴로니어스는 그녀에게 절대적인 힘을 지니기에 오페리아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복종한다.

오페리아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이 지배당하는 딸로 등장한다. 이를 눈치 챈 햄릿은 오페리아의 정직성을 의심하게 되고 드디어는 순결성마저도 의심하게 되어 이러한 오페리아에게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반복적인 행위”(a repetition of his mother)<sup>24)</sup> 보게 되며, 어머니가 그에게 안겨준 실망과 증오가 그녀에게 재현되고 만다. 그리하여 오페리아가 그들의 사랑을 회복하려는 악의 없는 계획은 햄릿에게 유혹, 속임수와 같은 사랑

---

24) Tillyard, *Shakespeare's Problem Plays* (London, 1964), p. 21.

으로 햄릿에게 다가오게 되며 그의 어머니와 그녀를 연상시키게 한다. 그리고는 오필리어에게 햄릿은 오필리어를 사랑하지만 햄릿은 차라리 어머니가 자신을 낳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수녀원으로 가시오. 왜 그대는 죄 많은 인간을 낳고 싶어 하오. 내 판엔 내가 꽤나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소만 그래도 내 어머니가 차라리 날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하고 한탄할 만큼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소. 나는 오만하고 집념이 강하고 야심도 큰 사람이라 일일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다듬고 형체를, 그리고 실행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술한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오. 이런 미물이 천지간을 기어 다니며 도대체 할일이 무엇이겠소? 우리 인간이란 모두 악당이오. 아무도 믿어선 안돼. 곧장 수녀원으로 가시오. (3.1. 119-126)

Get thee to a nunnery - why wouldst thou be a breeder of sinners? I am myself indifferent honest, but yet I could accuse me of such things, that it were better my mother had not borne me. I am very proud, revengeful, ambitious, with more offences at my beck than I have thoughts to put them in, imagination to give them shape, or time to act them in. What should such fellows as I do crawling between earth and heaven? We are arrant knaves all, believe none of us. Go thy ways a nunnery.

수녀원은 그녀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오필리어에 대한 햄릿의 사랑과

미움이 나타나 있다. 어머니에게 받았던 배신을 또 한번 사랑하는 애인에게 당하게 되니 슬픔과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머니에 대한 여성혐오는 애인인 오피리어에게 이어지고 마침내는 모든 여성에게까지 연결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여기에서 ‘nunnery’의 표층적 의미는 수녀원이지만 동시에 창녀촌이란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햄릿의 여성혐오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where’s your father?”(3.1. 132)라는 그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거짓말은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의 계획에 맞게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미 왕실의 타락에 물들었음을 암시해 준다. 이 때문에 햄릿이 더욱더 그녀에게 궁중을 떠나 수녀원으로 가라고 강요하게 된다. 현재의 고통에서 자신이 도망갈 자리는 없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은신처는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정조가 굳은 여자인가”(Are you fair? 3.1 105)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녀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모욕한다. 오피리어의 말대로 그녀는 가부장적인 훈육에 따라 행동한 죄밖에 없는데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오해를 받고, 파멸되는 여주인공이 된다. 오피리어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엿보았고, 여성의 정절만을 강요받으며 자아의 성장에 관한 것이나 감정은 무시된 채, 단지 침묵과 복종을 강요받았다. 햄릿에 대해 그녀의 잘못이 있다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의 자신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 그리고 왕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햄릿과 우연히 마주치는 듯이 행동한 것뿐이다. 그것도 햄릿이 왜 변한건지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전제하에 명령에 따라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리 없는 햄릿은 그러한 오피리어의 태도 변화를 어머니와 동일시해서 여성 혐오로 발전시켜 생각했던 것이다. 순수한 오피리어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녀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용만 한다.

즉 오피리어는 자아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수행하는 인물이 되어 버린다. 주위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을 알지만 그녀

의 통찰력은 여성의 침묵을 강요하는 가부장 사회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미친 후에야 그녀의 노래 속에서 드러난다. 오필리어는 “나쁜 하인이었다. 어쩌면 주인집 딸을 훔치다니!”(They say the owl was a baker’s daughter./ Lord, we know what we are, but know not what we may be. God be at your table. 4.5. 42-44)라고 말을 하는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은 딸을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딸을 물건 취급하여 훔쳤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때, 그 사회에서의 여성의 비극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필리어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녀의 삶을 이끌어 가던 아버지 폴로니어스가 죽고 나자, 그녀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믿었던 “그는 죽어서 영영 가버렸다”(He is dead and gone;/ At his head a grass-green turf, 4.5 29-30)는 말은 외면적으로는 햄릿과 그녀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믿고 의지해 왔던 그녀의 자아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궁정의 사람들에게 꽃을 나누어 준다. 그리고 끝내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 익사하고 만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햄릿에 대한 사랑을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런 감정이 그녀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녀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자아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어 오필리어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든(Dowden)은 비극의 원인이 오필리어 자신보다는 그녀의 자발적인 언어와 행동, 그리고 도덕적인 용기를 억제하도록 양육되어져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녀는 확실한 자아에 용기 있는 행동을 내기보다는 실패하기 쉽다고 단언함으로써 그녀의 양육이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sup>25)</sup> 자아는 있지만 가부장사회에서 그녀는 자아확신이 부족했던 것이다.

오필리어의 이상적인 미덕은 아버지에 의해서 꺾이고 햄릿에 의해서 외면당한 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죽는다. 그녀의 죽음은 라담(Latham)<sup>26)</sup>이나 캠벨

25) Edward Dowden,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London: Ruthland, 1975), pp. 138-39 참조.

(Cambell)<sup>27)</sup>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햄릿에 대한 사랑을 잃은 슬픔보다는 오페리아 자신의 자아상실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오페리아의 죽음은 햄릿에게 자아회복을 가져다준다. 마음을 괴롭게 했던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근친상간의 결혼으로 시작되고 오페리아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그녀는 인내할 줄 아는 여인이지만 용기가 없으며 자아에 대한 용기 있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정신적인 안정감이 없었다. 또한 여자로서 부드러운 사랑은 줄 수 있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은 주지 못했다.<sup>28)</sup>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아버지에게 대한 딸로서의 진정한 의무를 판단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오페리아를 라담(Latham)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her life has been that of a slave, and has the virtues and vices of one. <sup>29)</sup>

그녀의 삶은 노예로서의 삶이었으며 그녀는 노예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거트루드가 오페리아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가 햄릿의 부인이 되기에 이상적인 여성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오페리아는 미래의 여왕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여인임에 틀림없다.<sup>3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리아의 삶은 노예와 같은 삶으로 아버지와 오빠에게 순종했지만 그녀의 자아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햄릿에게 버림받고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26) Grace Latham, "O Poor Ophelia!," *Transactions of the New Shakespeare Society*. 1990, p. 410 참조.

27) Lily B. Campbell, *Shakespeare's Tragic Heroes* (New York: Barnes & Nobel, Inc., 1961), p. 145 참조.

28) 박선희, "셰익스피어 비극의 여성인물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2000), pp. 64-65 재인용.

29) Grace Latham, "O Poor Ophelia!," *Transactions of the New Shakespeare Society*. 1990, p. 430.

30) Dick Dotterer, *Shakespeare's Ladies*, (Rancho Mirage: Dramaline Publications, 1992), p. 36 참조.



햄릿작품은 정치권력과 여성의 성의 문제를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햄릿작품에서 여성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들은 남성들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햄릿작품에서 거트루드와 오펔리어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일관되며 주변화된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 오펔리어가 햄릿과 있었던 일을 아버지 폴로니아스에게 보고하는 일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도 공인 받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햄릿은 그녀를 창녀로 취급한다. 결국은 여성이 남성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의 희생양이 된다. 거트루드는 햄릿이 광인이 되었다고 믿었을 때에도 항상 어머니로서 햄릿을 이해해주었고, 마지막 칼싸움에서도 독배를 마시면서도 햄릿에 대한 강한 모성애를 보여주지만, 이 또한 햄릿의 눈을 통하여 보여진 거트루드의 모습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주변화 되어 있다.

이렇듯, 햄릿 작품에서 오펔리어와 거트루드는 남성중심 사회인 가부장 사회에서 주변화되어 비주체적이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여성인물들로 비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가부장적 요소가 짙은 작가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두 여성이 비극적 인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목은 관점을 달리하면 셰익스피어의 내심을 가부장적 사회의 문제점을 두 여성인물을 통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다시 『오텔로』 작품에서 데스테모나를 중심으로 여성인물들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 B. 남성사회에 적극적 대처로 자아확립: 데스데모나와 이밀리어

『오텔로』는 『햄릿』과 비슷하게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지만, 『오텔로』는 혼한 연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서, 또한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 신뢰와 믿음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게 되는 가정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가부장사회에서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의식과 태도가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데스데모나와 이밀리어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르네상스 시대는 가부장사회이면서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기였다. “아프리카 무어사람 대 포르투갈 사람이 3대1, 포르투갈 사람 대 영국 사람이 3대1”(Three Moors to a Portuguese; three Portuguese to an Englishman)이라는 속담에서 그 당시 영국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sup>31)</sup>

그 시대 영국 국민들은 외국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여겼으며, 또한 검은 색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근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검은 색은 죄와 죽음의 색깔이었다.”(Black is the colour of sin and death). 이러한 견해는 전 세계에, 심지어는 아

31) G. K. Hunter, *Othello and Colour Prejudice*, ed. Kenneth Mui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 181-83 참조.

프리카에까지도 퍼져 있었다.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흑인은 불운, 죽음, 저주,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32)

『오텔로』가 쓰여진 시대(1604년) 다시 말해, 엘리자베스시대의 영국엔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백성들을 위해 ‘그들’ 흑인들을 영국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하였다.<sup>33)</sup>

이 작품은 부관 임명에 있어서 경험도 많은 자신, 이아고(Iago)를 놔두고 이론만 갖춘 그것도 베니스 태생인 아닌 프로렌스 태생인 캐시오를 부관으로 임명한 것에 불만을 품은 이아고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그는 로더리고(Roderigo)에게 자기는 겉으로는 오텔로(Othello)에게 충성을 다하는 체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진정으로 그에게 충성을 다하여 모시는 부하가 아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어인인 오텔로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아고는 부당한 직위 임명에 대해 화가나 오텔로에게 복수할 결심을 한다.

데스테모나는 베니스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상원의원인 브라벤쇼의 딸이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백인 귀족의 처녀이다. 반면, 오텔로는 베니스에서 용병으로 인정받고 장군의 위치에까지 올랐지만, 이방인이며 무어인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결혼 승낙 전에 이미 도망가 비밀 결혼을 한 상태였다. 이런 일을 알고 있던 이아고는 데스테모나의 아버지 브라벤쇼(Brabentio)를 깨워 일어나게 하고, 오텔로와 데스테모나가 비밀 결혼을 했다고 알려서 그들을 괴롭히고자 한다.

이아고는 브라벤쇼에게 성과 관계되는 말을 동물에 비유해서 그들의 비밀 결혼을 알리고 있다. 예를 들면, “늙은 까만 양이 맥의 흰 양을 덮치고 있습니다.”(Even now, very now, an old black ram/ Is tugging your white ewe; arise, arise 1.1. 89-90)라던가, “비아바리 산 말이 따님을 손에 넣었다니까요, 인제 손자들, 증손들, 친척 가운데 별별 말이 다 생길 겁니다.”(your daughter cover’d with

---

32) *ibid.*

33) Karen Newman, *And Was the Ethiop White: Fem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eds. E. H. Jean and Marion F. O'Connor, (Chicago UP, 1991), p. 129 참조.

a Barbary horse; you'll have your nephews neigh to you; you'll have coursers for cousins, and gennets for germans. 1.1. 111-113)라던가, “따님하고 무어 놉이 들러붙어서 등이 둘 달린 짐승을 만들고 있습니다.”(I am one, sir, that come to tell you, your daughter, and the Moor, are now making the beast with two backs. 1.1. 115-116)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종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타 인종을 혐오하는 말이 쉽게 쓰여 졌으며, 동시에 가부장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강했던 시대에 데스테모나의 비밀 결혼은 아버지인 브라벤쇼에게 엄청난 반란 행위였다.

브라벤쇼는 인정할 수 없는 딸의 이러한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에게는 죽은 거나 진배없습니다. 딸년은 농락당했습니다.  
도둑맞았습니다. 능욕 당했습니다. 돌팔이 의사한테서 산  
마약과 요술로 당했어요. 심지가 깊고 영리하고 똑똑한  
그것이 요술에 걸리지 않고서야 그렇게 허망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1.3. 59-64)

Ay, to me:

She is abus'd, stol'n from me and corrupted,  
By spell and medicines, bought of mountebanks,  
For nature so preposterously to err,  
(Being not deficient, blind, or lame of sense,  
Sans witchcraft could not.

브라벤쇼는 딸의 결혼은 “혈연의 반역”(O treason of the blood! 1.1. 169), “병신...장님... 분별력이 없는... 마약과 요술에 홀린”(By spells and medicines, bought of mountebanks,/ For nature so preposterously to err,/ Being not deficient,

blind, or lame of sense, 1.3. 61-63), “모든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난”(and she, in spite of nature, 1.3. 96) 것이다. 딸의 타인종과의 결혼선언에 충격을 받은 브라벤쇼는 로더리고에게 말한다. “아, 차라리 자네를 사위로 삼을 걸 그랬네!”(O that you had had her! 1.1. 176)라고 말을 한다. 이와 같은 브라벤쇼의 대사 속에는 평소 훌륭한 흑인보다도 보잘 것 없는 위인이라고 여기며 얽잡아 봤던 백인 로더리고가 차라리 더 낫다는 인종차별 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데스테모나의 결혼은 베니스 사회에서도, 그리고 가부장인 아버지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콜리지(Coleridge)도 데스테모나의 결혼에 대해 베니스의 아름다운 여성이 무어인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결혼은 분명 ‘부적절한’ 것이며 ‘불균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였다. 34)

이렇듯 사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데스테모나와 오티엘로의 부적절한 결합에 대해 Kiernan Ryan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In loving and marrying each other, Othello and Desdemona instinctively act according to principles of racial equality and sexual freedom which are still not normative, still far from generally accepted and practised even in our own day, let alone in Shakespeare's. 35)

오티엘로와 데스테모나, 이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인종상의 평등과 성적인 자유에 대한 본질에 따른 본능적인 행동이다. 이런 행동들은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우리시대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34) Cook Judith, *Our Bright Day is done and We are for the Dark*. Ed. Cook Judith. London : Virgin Books, 1990, p. 95 참조.

35) Kiernan Ryan, *Shakespeare* (Worcester : Harvester New Readings, 1989), pp. 122-24.

이렇게 여러 비평가들도 데스테모나와 오텔로의 결혼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자신들의 결혼을 완고히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데스테모나는 “저는 오텔로 장군의 군인다운 기백에 마음이 끌렸습니다.”(That I did love the Moor, to live with him, 1.3. 248)라는 그녀의 대사에서 드러나듯이 데스테모나가 오텔로를 사랑한 것은 그의 진실한 마음인 것이다. 또, “제 영혼과 운명을 기꺼이 오텔로에게 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And to his honours, and his valiant parts/ Did I my soul and fortunes consecrate: 1.3. 253-255)라는 말처럼 데스테모나가 오텔로에게 바치는 사랑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에 그녀는 오텔로의 인간적인 내면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했던 것이다. 피들러(Fiedler)는 이러한 데스테모나의 결혼 실현 의지를 “하얀 악마의 힘”(the power of the white devil)이라고 지칭하며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sup>36)</sup>

브라벤쇼의 눈에 비치던 딸은 “단 한번도 뻔뻔한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처녀이며, 아주 조용하고 차분해서 자신의 자연스런 욕구에도 얼굴을 붉히던 처녀”(So still and quiet, that her motion/ Blush'd at her self: and she, in spite of nature,/ Of years, of country, credit, everything, 1.3. 95-97)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버지가 생각해 온 가부장제의 수동적이고 암전한 딸이 아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여성이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데스테모나의 무어인과의 결혼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탈피해서 오텔로의 세계에서 자유를 얻고자했던 것일 수도 있다.<sup>37)</sup>

르네상스 시대의 가부장제 지배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 틴테일(Tyndale)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6) William Tyndale, *Obedience*, (London: Longman, 1989), p. 171 참조.

37) 김미애,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나타난 여성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학위논문(2000), p. 67 재인용.

Most Women must have entered marriage, like Desdemona,  
directly from paternal domination. 38)

가부장사회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데스데모나처럼 아버지의 지배  
로부터 벗어나고자 즉시 결혼을 하고자했음에 틀림없다.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복종하였으며,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  
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에게 단순히 복종만 하는 소극적인 여성은 아니다. 당  
대의 여성들은 “부모에서 남편으로”라는 결혼관의 영향으로 그들의 위치가 변화되  
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데스데모나는 여러 대사를 통해 자신의 결혼의지를  
분명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1막 3장에서 데스데모나는 아버지에게는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의무의 주인이긴 하지만, 이제  
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여준 의무를 자기의 남편에게도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My noble father,  
I do perceive here a divided duty:  
To you I am bound for life and education,  
My life and education both do learn me  
How to respect you, you are lord of all my duty,  
I am hitherto your daughter : but here's my husband:  
And so much duty a my mother show'd  
To you, preferring you before her father,  
So much I challenge, that I may profess,  
Due to the Moor my lord. (1.3. 180-189)

---

38) *ibid.*

아버님, 저의 의무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버님에게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받고 있고, 낳고 기르신 은혜로 해서 아버님을 공경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님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버님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남편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외조부님보다 소중하게 여기셨듯이  
저도 아내로서 남편인 오델로님을 지성껏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테스테모나는 결혼 전에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르는 당대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들어맞는 이상적인 여성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동시에 테스테모나는 오델로와의 결혼의지를 단순히 감정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반대하는 아버지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하는 지혜로운 여  
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테스테모나 또한 아버지를 떠나 오델로에 대한 사  
랑에 충실하겠다는 테스테모나의 말은 아버지라는 권리로부터 독립해 자신이 선택  
한 결혼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테스테모나는 오델로를 향한 이러한 사랑을 원로 의원들과 아버지 앞에서 당당히  
밝힌다.

That I did love the Moor, to live with him,  
My downright violence, and scorn of fortunes,  
May trumpet to the world. (1.3. 248-250)  
제가 무어장군을 사랑하여, 함께 살고 싶어 함은



오직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운명의 사나운  
물결 속에 몸을 던진 행동으로 이 세상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순종적이면서도 강인한 주체의식을 지닌 데스테모나가 베니스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그 당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더욱이 오델로를 결혼의 상대자로 삼고 브라벤쇼의 허락 없이 둘만이 결혼한 것을 브래드베리(Bradbury)와 파머(Palmer)은 “브라벤쇼에게 오델로를 향한 데스테모나의 사랑은 자연에 대한 탈선과도 같은 행위이다.”(To Brabantio, Desdemona’s love for Othello is the aberration in nature.)고 말하고 있다.<sup>39)</sup>

위에서처럼 데스테모나의 결혼은 아버지 브라벤쇼에 대한 단순한 반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당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오델로와 결혼한 것과 그를 따라 사이프러스(Cyprus) 섬으로 가겠다고 그녀가 자청하는 것은 베니스의 가부장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일로 취급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스노우(Snow)는 이러한 데스테모나의 사회적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Brabantio is scandalized by a betrayal that is sexuality itself, a female sexuality he discover in his daughter as a will independent of his own and a revolt against his authority as both a father and a ruling member of Venetian society. He experience his daughter’s behavior not only as a personal grief but as a scandal that threatens the basis of the patriarchal social order. <sup>40)</sup>

---

39) Malcolm Bradbury & David Palmer, (eds.) *Shakespearean Tragedy*, Stratfordupon -Avon Studies 20 (London : Edward Arnold Ltd., 1984), p. 144.

브라벤쇼는 베니스 사회의 한 일원이며 아빠로서의 그의 권위에 대항하는 반항심과 그의 소유였던 딸에게 독립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여성이라는 성애 그 자체에 배신감으로 분개한다. 그는 자신의 딸의 행동에 비탄해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의 기초에 대하여 위협할 사건이라는 것을 경험한다.

위의 설명에서처럼 데스테모나의 결혼은 베니스의 질서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이러한 데스테모나의 결혼에 대한 행동에 따른 근본적인 책임은 브라벤쇼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데스테모나에게 있어서 오델로와의 결혼은 베니스 사회의 억압적인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라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브라벤쇼이기 때문이다. 브라벤쇼는 전쟁시에는 용병으로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무어인 오델로를 총애하여, 자기 집에 자주 초대하곤 했었다. 오델로의 인생에 관한 일들과 그가 겪은 여러 전쟁과 성을 공격한 이야기, 승패에 따른 운명의 교차 상황 등에 관한 얘기 듣기를 좋아했다. 데스테모나는 그러한 온갖 모험담과 특히 오델로가 어렸을 때 겪었던 비참한 얘기를 듣고는 한없는 연민의 정을 보이게 되고 오델로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오델로도 자기가 겪은 그 모든 위험한 이야기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스테모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가부장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도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 데스테모나에게, 아버지 브라벤쇼는 오델로를 집으로 초대하여, 그의 온갖 모험담을 딸과 함께 듣는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그러한 구속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녀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현실화 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브라벤쇼가 오델로를 사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백인과 흑인간의 인종적 결합에 대한 거부감과

40) Edward A Snow, *Sexual Anxiety and the Male Order of Things In Othello*, English Literary Renaissances. Ed Athur F. Kinney ( London : The Common Wealth, 1980), p. 410.

사회적 지위, 나이, 국적, 가족관계 등의 차이 때문이다. 41)

그러나 데스테모나의 결혼에 대한 강한 주체성과 의지에 브라벤쇼는 오텔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리 오게, 무어. 아직 자네 것이 안되었던들 단호히  
거절하겠네만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할 수 없는 일!  
자네에게 깨끗이 내 딸을 주겠네.(1.3. 192-193)

Come hither, Moor:

I here do give thee that with all my heart

Which, but thou hast already, with all my heart

I would keep from thee.

여기에서 브라벤쇼는 데스테모나를 'that'라고 지칭하며 그것을 오텔로에게 주겠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브라벤쇼가 가부장사회의 인식에서 데스테모나를 물건처럼 주고받고 교환할 수 있다는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가부장 사회에서 딸을 결혼시킬 선택권을 잃어버린 브라벤쇼는 데스테모나와 오텔로의 결혼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기에 다음과 같이 오텔로에게 경고한다.

무어, 눈이 멀지 않는 한 내 딸을 잘 지켜보게.

아비를 속인 년이 남편인들 못 속이겠는가.(1.3.292-293)

Look to her, Moor, have a quick eye to see:

She has deceived her father, and may do thee.

---

41) Neely, "Othello in the Borderlands," p. 304 참조.

테스데모나의 오델로와의 결혼에 대한 그녀의 용기는 당시 사회에서 결혼 결정에 대한 권리가 남성에게 있었으며, 여성은 수동적으로 남성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관습을 탈피한 것으로 보아 테스데모나의 대담성도 파악할 수 있다. 테스데모나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은 결혼 첫날밤에 사이프러스로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아버지와 공작 앞에서 용감히 자신을 밝히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 저만 뒷전에 남아 안일한  
생활을 누리고 이분만 싸움터에 나가신다면 아내 된  
보람도 없거니와 독수공방의 무거운 기분으로 껍 쓸쓸할  
것입니다. 부디 같이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So that, dear lords, if I be left behind,  
A moth of peace, and he go to the war,  
The rites for which I love him are bereft me,  
And I a heavy interim shall support,  
By his dear absence; let me go with him.(1.3. 255-259)

험한 바다를 향해하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남편을 따라 전쟁터인 사이프러스로 가겠다는 테스데모나의 모습은 아버지인 브라밴쇼가 말했듯이, 단순히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Dash의 다음 말에서처럼 사이프러스에서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는 테스데모나의 모습은 남성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당시 여성들과는 달

리 강한 주체성을 볼 수 있다.

At Cyprus, she [Desdemona] continues to surprise us with her freshness and vigor, as well as, her sensitivity to those around her. With Iago, she parries in verbal quips. With Lieutenant Cassio, her husband's second in command, she acts the solicitous friend. To all, waiting anxiously with her for Othello's arrival, hoping that his ship has not been lost in the storm, she reassures with her gaiety, confiding to the audience. 42)

사이프러스에서, 데스테모나는 그녀의 주변의 것들에서 감각뿐만 아니라 신선함과 활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만든다. 이아고에게 그녀는 재치 있는 말로 슬쩍 피한다. 그녀의 남편의 제 2의 부관으로서 통솔하는 중위 캐시오에게 그녀는 걱정해주는 친구로 행동한다. 모두들 오델로의 배가 폭풍에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오델로의 도착을 위해 그녀와 더불어 걱정하며 기다린다. 그녀는 관객에게 명랑함과 신뢰성으로 안심시킨다.

이렇게 데스테모나는 두 번이나 가부장사회에 도전한다. 한번은 아버지 허락 없이 남편을 선택한 것이며, 또 한번은 타 인종인 무어인과 결혼함으로써 베니스의 가부장사회에 도전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외면적인 부분만 보고 평가할 때에는 이아고의 간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데스테모나와 오델로의 진정한 사랑을 시기했던 이아고는 데스테모나를 부정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

42) Irene G Dash, *Wooing, Wedding, and Power : Women in Shakespeare's Plays* (New York : Columbia UP, 1981), p. 108.

을 동원한다.

오텔로를 파멸시키게 되는 이아고의 동기는 직책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무어인 오텔로가 데스테모나와의 결혼으로 백인사회의 가부장의 소유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sup>43)</sup> 그리하여 백인사회의 남성으로서 이아고가 오텔로의 아내 데스테모나의 정절을 훼손시킴으로써 보복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아고는 데스테모나가 상냥하고, 너그러운 대자연과 같이 은덕이 깊은 여자라며, 진심으로 사정을 하면 들어줄 사람(you are too severe a moralist; as the time, the place, the condition of this country stands, I could heartily wish had not so befallen 2.3. 290-292)이라면서 오텔로 장군과 부관 캐시오의 벌어진 사이에 다시 캐시오를 복직시켜주는 것을 부탁하게 함으로써(since it is as it is, mend it, for your own good. 2.3. 292-293) 모든 일들은 이아고의 계략대로 진행된다. 이아고의 계략은 데스테모나가 육체의 욕정 때문에 캐시오의 복직을 조르는 것이라고 치명적인 병을 들먹이며 오텔로의 귀를 어지럽힌다. 이것은 그녀가 캐시오를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남편 오텔로에게 더욱 더 의심을 받게 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에드워스(Edwards)는 이아고가 데스테모나가 타락할 수 없는 여인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44)</sup> 에드워스의 이와 같은 말은 이아고의 다음의 대사에 서 증명될 수 있다.

나는 무어의 껍속에다 독을 퍼 넣는단 말이다.

부인이 그자의 복직을 호소하는 건,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여자가 캐시오를 위해

힘을 쓰면 쓸수록 무어의 의심을 더 받게 되지.

여자의 정절에 흠질을 할 뿐만 아니라 선의를 미끼로

---

43) 권혜진, “*Othello*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학위논문, p. 31참조.

44) Philip Edwards, *Shakespeare and the Confines of Art* (London : Methuen, 1968), p. 125 참조.

써서 그들을 모두 덧으로 읊아맨다 이거지. (2.3. 347-353)

I'll pour this pestilence into his ear,  
That she repeals him for body's lust;  
And by how much she strives to do him good,  
She shall under her credit with the Moor;  
So will I turn her virtue unto pitch,  
And out of her own goodness make the net  
That shall enmesh'em all.

그러나 이아고에게는 데스테모나의 순결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단지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녀를 교환, 판매가 가능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이용할 뿐이다. 그는 또한 데스테모나가 오델로에게 싫증이 나면 후회하고 청년으로 상대를 바꿔 치기 할 것이라 여기며, 이아고는 데스테모나와 오델로의 결혼도 그러한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이아고는 다른 사람들의 장단점과 심리를 이용해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 친구인 척하며 그들을 파멸시킨다.

오델로는 자신의 검은 피부와 데스테모나와의 현격한 나이차이,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다.

이아고는 이러한 오델로의 단점을 이용하여 데스테모나를 부정한 여자로 만들기 위한 음모를 시작한다. 데스테모나는 사이프러스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부관자리를 빼앗긴 캐시오를 복직시키기 위해 오델로에게 졸라댄다. 이것은 이아고에 의해 오델로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며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남성들의 의지에 맞추어 살아야 했다. 남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결혼 전에는 아버지와 딸, 결혼 후에는 남편의 아내,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로 살도록 되어져 있던 것이

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이 정해놓은 질서 체계 속에서 살아야 했었다. 따라서 이런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서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억압당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테스테모나는 극 초반의 매우 적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결혼하여 한 남자의 아내가 된 후에는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는 가부장사회가 요구하는 매우 이상적인 여인상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브라벤쇼에게, 그리고 결혼 후에는 오텔로에게 순종과 의무를 다하며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고 가부장적 가치 체계 속에서 복종하며 산다. 남편 오텔로의 오해로 억울하게 부정한 여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변명이나,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극의 초반부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그 시대의 순종적이고, 침묵을 지키는 매우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환원된다(3막3장 참조).

오텔로는 테스테모나의 간통의 문제에 부딪치자 그녀에 대해 더욱 강한 소유욕을 가지게 된다. 그의 머리 속에는 이아고의 말 때문에 생긴 의혹과 캐시오의 모습과 브라벤쇼의 경고가 더욱더 테스테모나를 의심하게 만든다. 극 초기에 보여준 테스테모나에 대한 오텔로의 진실한 사랑은 아내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혼란스러움에 이아고는 오텔로가 이방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베니스 여자들의 부정한 성질을 일반화하여 테스테모나에게 적용시켜 오텔로의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어 버린다. “조심하여야 합니다. 저는 제 고장 사람들의 성질을 잘 압니다. 베니스의 여자들은 음란한 짓을 신에게는 태연히 보여도 남편에게만은 감쪽같이 숨깁니다. 그들의 양심이란 간특한 피주머니를 차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랍니다.”(Wear your eye thus, not jealous, nor nature/ Out of self-bounty be abused, look to 't:/ I know our country disposition well;/ In Venice they do let God see the pranks 3.3. 202-206), “부인은 아버지를 속여 장군님과 결혼한 분이십니다. 장군님의 얼굴이 무서워서 떠는



것같이 보였을 때가 장군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을 때였습니다.”(They dare not show their husbands; their best conscience/ Is nor to leave undone, but keep unknown. 3.3. 207-209). 오델로의 마음속에는 아내의 부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이아고의 계략대로 데스테모나는 캐시오의 복직을 오델로에게 계속 부탁하고, 오델로는 데스테모나에 대한 자신의 의심에 대해 직접적으로 캐시오와 그녀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며 오직 이아고의 말에만 의존하면서 아내에 대한 의심은 더욱 가속화되어 간다. 오델로에게 있어 견디기 힘든 것은 결혼을 통해 데스테모나는 자신의 것이 되었는데 아내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함으로써 서로에게 동반자라는 의미가 아닌 여성의 성과 그에 대한 욕망을 남성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오델로의 의심과 고통은 그러한 남성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가부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절이 필수적인데, 여성의 성(sexuality)만은 남자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서, 여성의 부정에 대한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남자들은 여성의 성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두려움을 역으로 창녀라고 비난함으로써 여성을 억압한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그 남편을 가리켜 “오쟁이 진자”(cuckold)라고 부르고, 그 남편은 아내의 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된다. 그래서 남편들은 자신이 그러한 오쟁이 진 자가 될까봐 불안해하면서, 아내를 더욱더 억압하려고 한다. 이아고가 바로 가부장적 남편의 표징이 되고 있다. 여성을 주체성을 가진 남성과 같은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가부장사회의 인식에 이아고에 의해 오델로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급기야, 오델로는 결혼을 저주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느니 차라리 두꺼비가 되고자 한다.

오 저주받을 결혼,  
 이 어여쁜 물건들을 내 것인 양 불러 봤댔자,  
 결국 내 것이 아니란 말야!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인간의 손아귀에 넣어놓고,  
 한 귀퉁이만 붙잡고 있다면, 차라리 두꺼비가 되어서  
 흙 구멍 속의 썩은 공기나 마시고 있는 게 낫지. (3.3. 272-277)

O course of marriage,  
 That we can call these delicate creatures ours,  
 And not their appetites! I had rather be a toad,  
 And live upon the vapour in a dungeon,  
 Than keep a corner in a thing I love,  
 For other's uses : ...

여기에서 오델로는 'ours', 'thing', 'other's', 'uses'와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테스데모나를 물건에 비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결국 오델로가 테스데모나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 비극으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인 구실을 하고 있는 손수건 사건은 오델로에게 테스데모나를 창녀로 만드는 수단이 되고 만다. 3막에서 손수건의 유래에 대한 오델로의 이야기에 불구하고 손수건은 여성의 정절과도 같은 의미로서 테스데모나의 욕망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가부장적 불안을 보여주는 물건이 된다. 실제로 오델로의 손수건에 대한 유래에 관한 설명은 여성의 성에 대한 가부장적 불안을 표현하고 있다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귀여움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할 수 있을 것이로되, 만일 그걸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남편의 눈에는  
혐오심이 물들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고 했소.

While she kept it

'Twould make her amiable and subdue my father

Entirely to her love; but if she lost it

Or made a gift of it, my father's eye

Should hold her loathed and his spirits should hunt

After new fancies. (3.4. 56-61)

그러면서 오델로는 “그것을 당신의 눈처럼 소중히 해야 하오. 그걸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준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을 자초하게 될 거요.”(Make it a darling, like your precious eye,/ To lose, or give 't away, were such perdition/ As nothing else could match. 3.4. 64-66)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결국 데스테모나는 손수건을 잃어버리게 되고 손수건의 분실은 데스테모나의 오델로에 대한 사랑의 배신이 되며, 부정을 행한 증거가 된다. 남성의 소유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손수건은 여성에게 바로 정조를 의미하였기에 손수건의 상실은 곧 정조의 상실, 부정으로 간주되었다.

캐런 뉴먼(Karen Newman)은 “In cinquecento Venice, possession of a lady's handkerchief was considered proof of adultery and led to stringent punishments.”(16세기 베니스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손수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부정의 증거로 간주되었고 그러한 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초래하는 증거로 간주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45)

결국 오텔로는 이아고의 계략에 속아 손수건을 데스데모나의 정조와 관련시킴으로써 극은 과극으로 치닫게 된다. 결국 데스데모나는 오텔로가 말하는 정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손수건의 분실로 인해 그녀의 모든 행동이 부정함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린다. 가부장적 의미로 생각해 볼 때, 데스데모나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던 오텔로는 아내의 부정으로 오쟁이진 남편이 되어버린 것이며, 이 일로 인해 자신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 하던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내의 부정을 확신한 오텔로는 데스데모나를 매춘굴에서 성을 파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그녀를 완전히 창녀로 취급 한다.

이 순백의 종이, 이 아름다운 책은 여기다  
‘매음’이라고 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고? 범했구말구! 천하의 매춘부! 네 행실을  
입 밖에 내기만 해도 내 뺨은 용광로의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라 수치심도 타버려 재가 된다. 무슨 죄를 범했느냐고?  
하늘도 코를 틀어막을 거다, 달도 눈을 감을 거다,  
닥치는 대로 입을 맞추는 음란한 바람까지도 대지의 땅굴 속에  
은신하여 숨을 죽이고 귀를 막을 거다.  
무슨 죄를 범했느냐고? 뽀뽀스런 매춘부야!  
Was this fair paper, this most goodly book,  
Made to write "whore" on ?... What, committed?  
Committed! O thou public commoner!  
I should make very forges of my cheeks,  
That would to cinders burn up modesty,

---

45) Karen Newman, *And Wash the Ethiop*, p. 155.

Did I but speak thy deeds. What committed!  
 Heaven stops the nose at it, and the moon winks,  
 The bawdy wind, that kisses all it meets,  
 Is hush'd within the hollow mine of earth,  
 And will not hear't: ... what committed,—  
 Impudent strumpet! (4.2. 73-83)

오텔로는 데스테모나를 “천하의 갈보년,” “뻥뻥스런 매춘부”라고 욕하면서 데스테모나가 창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한다. 이것은 데스테모나가 결혼 전에는 아버지 소유에서, 결혼 후에는 남편소유로, 그 다음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남자의 소유를 뜻하는 창녀로 인식되어 버린 것을 뜻한다. 그러나 데스테모나의 정숙하고 지혜로운 성격은 그녀의 여러 대사에서 증명되어진다. 4막2장에서 데스테모나는 세상의 보물을 다 준다 해도 남편을 속일 수 없다는 말에서 그녀의 순결성과 정절을 지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난 ‘매춘부’란 말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어요.  
 지금 그 말을 입에 담은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져요.  
 이 세상의 보물을 모두 준다 해도 난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질 행동은 할 수 없어요.(4.2. 163-166)

I cannot say "whore":  
 It does abhor me now I speak the word;  
 To do the act that might the addition earn  
 Not the world's mass of vanity could make me.

그리고 자신이 부정한 여인으로 되어버린 것에 대해 데스테모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맹세하지만, 마음속으로나 실제 행동으로나 그분의 사랑을 배반한 적이 있었다면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다른 감각이 딴 남자에게 팔린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설사 그이가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하셔도 지금도,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난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좋아요.(4.2. 154-161)

If e'er my will did trespass 'gaint his love  
Either in discourse of thought or actual deed,  
Or that mine eyes, mine ears or any sense  
Delighted them in any other form,  
Or that I do not yet, and ever did,  
And ever will (Though he do shake me off  
To beggarly divorcement) love him dearly,  
comfort forswear me!

또한 데스테모나의 강한 주체성은 2막 이야기의 농담에서도 나타난다. 데스테모나는 이야기의 여성혐오적인 말장난을 듣고 나서 “선술집에서 멍청한 사람들이나 웃길 얘기군요.”(Teses are old paradoxes, to make fools laugh i' the alehouse; what miserable praise hast thou for her that's foul and foolish? 2.1. 138-140)라 꼬집는다. 아무리 훌륭한 여자라도 “자식새끼에 짓이나 빨리고 가게부나 적고 있

으라면 안성맞춤이죠.”(To suckle fools, and chronicle small beer. 2.1. 160)라는 이아고의 말에 “이밀리어, 아무리 내외간이라지만, 남편 말 곧이들으면 안돼요.”(do not learn of him, Emilia, though he be thy husband; 2.1. 162)라고 하며 불합리한 가부장의 편견에는 따르지 말라고 조언한다. 또한 세상엔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는 여자가 있는가하는 문제를 이밀리어에게 묻는다. 데스테모나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남편을 위해서는 남편도 속일 수 없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밀리어는 큰 이익을 위해서는 남편도 속일 수 있다는 세속적인 태도를 보인다. 어떤 대가에도 자신의 정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스테모나의 말은 그녀의 확실한 정체성을 지닌 여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체성이 강하던 그녀는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극의 초반부에 스스로 흑인 무어인을 남편으로 선택할 만큼 상당히 주체성 있는 여성으로 그려졌던 데스테모나는 결혼 후 오델로에게 부당한 오해를 받고 창녀 취급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하지 않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또 캐시오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부당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으로 변해가고 만다. 주체성이 강한 그녀의 행동들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버린 것은 그 당시의 가부장제라는 억압에 그녀의 주체성과 강한 의지를 지켜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가부장 사회라는 억압으로 인해 더 이상의 주체성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델로는 데스테모나를 죽여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내가 다른 남성들을 배신할 지도 모른다는”(else she'll betray more men. 5.2. 6) 명분을 내세운다. 브라벤쇼가 아버지를 속인 데스테모나가 남편인들 못 속이겠냐고 했던 경고, 이아고가 또 다시 강조한 것이 오델로로 하여금 아내의 부정을 쉽게 믿도록 작용한 것이다. 오델로 역시 아내가 자신에 대한 정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남성에게도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결혼을 감행했던 그녀가 남편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듯이, 남편에게 부정을 저지른 여성은 또 다른 남성에게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델로에게는 그녀를 죽이는 것만이 더 이상의 배신을 중단시키고 가부장사회 속에서 손상된 자신의 명예도 되찾는 것이 된다.

한편 데스테모나는 자신의 죽음을 예측한 듯이 이밀리어에게 침대에 신혼 때 쓰던 홉이불을 깔아달라고 부탁하며(Soft, by and by; let me the curtains draw. Where art thou? 5.2. 106-107), ‘버들노래’(willow song)를 부른다. 이 버들 노래는 자신의 집에 있던 바아바리(Barbary)라는 하녀가 즐겨 부르던 노래로 그녀는 애인에게 버림받고 죽은 여인이다. 그녀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으며, 무관심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But never taint my love. I cannot say “whore”; 4.2. 163)말하며 “자신이 죽으면 신혼 때 쓰던 홉이불로 싸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All’s one, good faith: how foolish are our minds!/ If I do die before thee, prithee shroud me/ In one of those same sheets. 4.3. 23-24) 그녀의 죽음은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질서를 거부한 여성들에게 주어진 부당한 결과인 것이다. 그녀에게 오델로와의 사랑이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그에게 부정한 여자로 오해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이므로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정확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오델로가 데스테모나를 살해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부장사회의 결혼의 모순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밀리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부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데스테모나의 죽음에 대한 오해와 정절을 증명하고 이 야고의 계략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밀리어의 태도는 여성에게 복종과 침묵을 요구하는 가부장사회에 도전함으로써 당대의 모순들을 표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을 밝히려는 이밀리어는 잔소리꾼(shrew)의 유형에 속하는 여성으로 묘사되면서도 그러한 측면이 긍정적으로 제시된다.<sup>46)</sup> 남편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이밀리어는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남편의 말을 좇는 것이 아내로서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못하겠어요.”(I think upon 't: I think I smell 't: O villainy!/ I thought so then: I'll kill myself for grief:/ O villainy, villainy! 5.2. 192-193)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복종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의 양해를 구한다. 이러한 태도는 잔소리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여성의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그 당시사회에서 여성이 당당히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사이다. 스탈리 브래스(Stallybrass)는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속해 있는 이밀리어가 데스테모나의 정절을 확인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닫힌 입과 잠겨진 집을 열고 나와야한다는 점에서 전복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47) 진상을 밝히려는 이밀리어에게 이아고가 거듭해서 요구하는 것도 “입 닥치지 못해!/나 불대지 말고 순순히 집으로 가.” (But did you ever tell him she was false?/ 5.2. 179,/ Which I first gave her; I saw it in his hand,/ I'll be in speaking, liberal as the air, 5.2. 216, 221)라는 것이며 이밀리어가 말을 듣지 않자 그는 아내를 “못된 창녀(villainous whore 5.2. 227)”라고 부른다. 이밀리어가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하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밀리어는 “난 절대로 집으로 가지 않겠어요”(I will ne'er go home. 5.2. 198), “신이건, 사람이건, 악마건 모두 몰려와서 입을 다물라고 호통 쳐도 말할테다.”(Let heaven, and men, and devils, let 'em all,/ All, all cry shame against me, yet I'll speak. 5.2. 222-223)라고 점점 더 이아고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며 말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이밀리어의 이러한 적극성은 데스테모나의 결백을 밝히고 이아고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남편에 대한 여성의 절대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던 가부장 사회

46) 이영미, “Shakespeare의 비극에 나타난 결혼과 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학위논문(2000), p. 113 재인용.

47) Stallybrass, "Patriarchal Territories," pp.141-42.

의 잘못된 결혼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밀리어는 데스데모나를 죽게 한 사람이 이아고임을 말하려 하자,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봐 그녀의 입을 막으려 하는 이아고에게 저항하면서 오직 사건의 진실을 밝혀 데스데모나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다. 더 이상의 무조건적인 가부장사회에서의 복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칼을 들고 엎어지지 거짓말은 안한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델로에게) 이런 천치 살인마! 이런 지지리 못한 인간한테 저런 훌륭한 부인을 어찌면 그럴 수가!”(By heaven I do not, I do not, gentlemen;/ O murserous coxcomb! what should such a fool/ Do with so good a woman? 5.2. 233-235)라고 하면서 그녀는 데스데모나가 죽음으로 증명했었던 정절과 오델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증언한 것이다. 자신의 말을 거부하는 아내를 이아고는 칼로 위협한다. 이것은 가부장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의 모습이다. 남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밀리어는 진실을 끝까지 밝힌다.

이 무지렁이 바보 무어야, 네가 말한 손수건은 내가 우연히  
주워서 남편한테 줬어. 그런 하찮은 물건을 갖고 하고  
추근추근하게 즐라대서 이상은 했지만, 나에게 그걸 훔쳐  
달라고 했던 거야.(5.2. 226-229)

O thou dull Moor, that handkerchief thou speak'st of  
I found by fortune and did give my husband,  
For often, with a solemn earnestness  
-More than in deed belonged to such a trifle-  
He begged of me to steal't.

이밀리어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자, 이아고는 칼로 이밀리어를 찌른다.

이아고의 칼에 맞고 쓰러지면서 데스테모나 옆에 눕혀달라며, 반복해서 버드나무 노래를 부르며 죽는다.

이필리어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사건에 대한 모든 진말을 밝히며, 이 극의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죽음으로 오텔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아고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된다. 단지 여자로서 이아고가 침묵하라는 말에, 즉가부장제 사회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뿐이다.

### Ⅲ. 셰익스피어의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먼저, 『햄릿』에서의 거트루드는 근친상간의 결혼으로 햄릿을 통해 부정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비록 그녀는 정숙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으나, 그 당시의 가부장 사회배경과 왕권의 권력을 탐하는 클로디어스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의 결정에 따라 아무런 힘도 없이 국가를 위해 자신의 자아를 펼치지 못하며, 그들의 힘을 거부하지 못하고 근친상간의 결혼을 한다. 거트루드는 햄릿에게 섹욕을 참지 못하고 숙부와 결혼한 여성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당시의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내로서의 의무와, 어머니에 대한 상처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트루드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남자들의 권력과 복수의 희생의 재물로 결국 비극을 당한 여성임을 볼 수 있었다.

오펜리어도 자신의 자아는 있었지만 아버지와 오빠가 강요하는 당대의 이상적인 여인상으로서 순결을 지키며, 사랑마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해야만 했다. 그 당시 가부장 사회로 인해 자신의 자아를 당당히 펼칠 수 없던 그녀는 햄릿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아와 지혜가 있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의 관습에 따라 딸로서 아버지의 의도대로 햄릿에게 오해를 받고 거트루드와 같은 창녀의 이미지로 전락해 버린다. 사랑하는 여

인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충격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도 없게 양육되어져 온 오필리어는 자신의 자아마저 무너지게 되며,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다 결국 미쳐서 자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부장사회 속에서 두 여성은 수동적인 인물로서 남성들의 가치관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거트루드보다 좀 더 적극적인 여성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데스테모나는 위 두 여성인물보다 자신의 대한 정확한 주체성과 자아를 내세우며 무어인 오델로와 결혼을 한 여성이다. 그 당시 흑인과의 결혼은 가부장사회에 대한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당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결혼을 한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지혜롭게 펼치던 데스테모나는 결혼 후, 이아고의 계략으로 인하여 남편인 오델로부터 정조를 의심받고 매춘부라는 언어적인 폭력 앞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순결함에 대한 오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의식대로 되어져가는 수동적인 인물로 변해 버린다. 그녀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순결함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오델로에게 말하지 못하고 결국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여성인물이 되어 버린다.

마지막으로 이밀리어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볼 때에,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가부장제사회의 억압과 권위에 자신의 정절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죽은 데스테모나의 오해를 풀어주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이다. 그녀는 그 당시의 사회배경과 가부장사회 속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억압과 이중적인 성도덕, 언어적인 폭력, 등의 실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당당한 자기의를 가진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이밀리어는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발언할 줄 알고, 남성들의 잘못된 부분과 여성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은 가부장사회 속에서 데스테모나의 죽음에 대

해 남편인 이아고가 침묵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해를 풀어주는 이밀리어는 결국은 이아고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여성이다.

『햄릿』과 『오델로』에 등장한 네 여성들은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당당히 펼치지 못하고 남성들에 의해 죽어가는 거트루드와 오펜리어, 그리고 줌더 그 성격이 발전되어 자기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사고 방식에 비판하는 데스데모나와 이밀리어 또한 당시 가부장 사회라는 강력한 틀 안에서 자아를 성취시키는 데 있어 당시 지배적인 가부장적 사회의 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 역시 비극적인 결말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듯, 셰익스피어는 네 여성인물을 내세워 가부장 사회의 폐습을 타파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역시 당시 남녀 관계의 불편 등을 고발하는 데 사회적 한계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배적인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개탄하는 셰익스피어는 여성들의 가정과 사회의 위치에 연민과 열린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작품

Shakespeare, William. *Othello*. Ed. M.R. Ridley. London: Methuen, 1958.

\_\_\_\_\_. *Hamlet*. Ed. Philip Edward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2. Reference

Bogdanov, Michael. "Is Shakespeare Sexist?" *Is Shakespeare Still Our Contemporary?* Ed. John Elso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pp. 64-78.

Bradbury, Malcolm & David, Palmer. eds. *Shakespearian Tragedy*, Stratfordupon-Avon Studies 20 (London: Edward Arnold Ltd., 1984).

Brown, Judith. "A Woman's Place Was in the Home: Women's Work in Renaissance Tuscany," *Rewriting the Renaissance*. Eds. Margaret W. Ferguson, Maureen Quilligan, and Nancy J. Vicke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p. 206-226.

- Campbell, Lily B. *Shakespeare's Tragic Heroes*. New York: Barnes & Nobel, Inc., 1961.
- Dash, Irene G. *Wooring, Wedding, and Power : Women in Shakespeare's Plays*. New York: Columbia UP, 1981.
- Dotterer, Dick. *Shakespeare's Ladies*. Rancho Mirage: Dramaline Publications, 1992.
- Dowden, Edward,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New York: Caprion Books, 1975.
- Dowden, Edward.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1881; rpt. New York, 1981.
- Edwards, Philip.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women*.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5.
- Gilchrist, Fredericka Beardsley. *The True Story of Hamlet and Ophelia*. Boston: Little, Brown and Co., 1889.
- Heilbron, Carolyn. "The Character of Hamlet's Mother," *Shakespeare Quarterly* 45, August 1957, p. 8.
- Hunter, G. K, *Othello and Colour Prejudice*, ed. Kenneth Muir, Interpretations of Shakespea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Jones Ernest, *Hamlet and Oedipus*. London: 1949.
- Judith, Cook. *Our Bright Day is done and We are for the Dark*. Ed. Cook Judith. London: Virgin Books, 1990.
- Keheler, Dorothea and Susan Baker eds. *In Another Country: Feminist Perspectives on Renaissance Drama*. Metuchen, N. J.: The Scarecrow Press, 1992.



- Knight, G. Wilson. *The Imperial Theme*. London: 1931.
- Latham, Grace. "O Poor Ophelia!," *Transactions of the New Shakespeare Society*. 1990.
- Leverenz, David. "The Woman in Hamlet: An Interpersonal View," *Representing Shakespeare*. Ed. Murray M. Schwartz and Coppelia Kah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P, 1980.
- Newman, Karen. *And Was the Ethiop White: Femin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Shakespeare Reproduces, eds. E. H. Jean Marion F. O'Connor.
- Newman, Karen. *Fashioning Femininity and English Renaissance Drama*. Chicago: U of Chicago P, 1991.
- Novy, Marianne. *Women's Re-Vision of Shakespea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0.
- Neely, Carol Thomas. "Circumscriptions and Unhousedness: *Othello* in Borderlands." Barker and Kamps p. 302-312.
- Ruskin, John. *Sesame and Lilies [1865]*, esprinted in *The Literary Criticism of John Ruskin*, ed. Harold Bloom. New York: Capo Press, 1965.
- Ryan, Kiernan. *Shakespeare* Worcester: Harvester New Readings, 1989.
- Stone, Lawrenc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and Row, 1977.
- Snow, Edward A. *Sexual Anxiety and the Male Order of Things In Othello*. English Literary Renaissances. Ed. Athur F. Kinney. London: The Common Wealth, 1980.
- Stallybrass, Peter. "Patriarchal Territories: The Body Enclosed," *Rewriting*

- the Renaissance: The Discourse of Sexual Difference in Early Modern Europe*. Ed. Margaret W. Ferguson, Maureen Quilligan and Nancy J. Vickers.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6. pp. 123-42.
- Thompson, Ann and Robert, Sasha. ed. *Women Reading Shakespeare 1660-1900*.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 Tillyard, E. M. W. *Shakespeare's Problem's Plays*. London, 1964.
- Tyndale, William. *Obedience*. London: Longman, 1989.
- Underdown, David E. "The Taming of the Scold: The Enforcement of Patriarchal Authority in Early Modern England," *Order and Disorder in Early Modern England*, Ed. Anthony Fletcher and John Stevenson Cambridge: Cambridge UP, 1985.
- William Richardson, *A Philosophical Analysis and Illustration of Some of Shakespeare's Remarkable in Characters*. London, 1774.
- 권혜진, "Othello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0, p. 31.
- 김미애,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나타난 여성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p.67.
- 김종환 역주. 『햄릿』. 셰익스피어 저.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8.
- 박선희, "셰익스피어 비극의 여성인물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64-65.
- 박소연, "셰익스피어의 여성들," 배재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p. 4,5,7.
- 신정옥 옮김. 『셰익스피어 전집』 (전예원 세계문학선, 1989)

성정심,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나타난 부정적 여성상,” 계명대학교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이영미, “Shakespeare의 비극에 나타난 결혼과 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p. 113.